

지역기업 AI 검·인증 대응 지원 본격화

전주시, 서울비즈센터서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지역기업에 대한 AI(인공지능) 검·인증을 지원해 지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10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2026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AI 신뢰성 확보와 검·인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AI 신뢰성 검·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주시와 JICA, TTA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



전주시는 10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2026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업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또 참석자들은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 구축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인증 연계 체계 마련 △향후 확산 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품질, 안전성, 인공지능 설명 가능성, 알고리즘 편향 점검, 인공지능 투명성, 인공지능 운영 모니터링 등 신뢰성 확보 요소를 체계

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AI 신뢰성 향상 컨설팅 △AI 신뢰성 확보 지원 △검·인증 사전 준비 및 연계 지원 △AI 신뢰성 실증 인프라 구축 △지역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주형 AI 신뢰성 허브 운영모델 수립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지역의 파지컬AI와 농생명, 제조, ICT 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해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주지식산업센터 내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매칭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AI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AI 품질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신뢰 기반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 시상

나눔 기쁨 실천한 5명·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 수여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 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0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등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4만여 명의 전주시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횟수 △봉사 시간 △참여 연수 등의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또, 정성평가 부분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기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함을 보인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전북 도청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대여 및 반납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전희

찬 씨(23) △꽃밭정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봉사 및 환경 정리에 성실히 참여해 온 김한철 씨(71) △혁신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노춘도 씨(60)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장 의체협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온 최지원 군(18)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성평가 일반인 부문에서는 올해 현재 80세 이상인 고령 봉사자 중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한 봉사자로, 전주시 여진박물관에서 안내와 관람객 응대로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신 이대영 씨(79)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국수 및 다양한 음식 나눔과 음악 공연을 통해 마음 치유 활동에 꾸준히 힘써온 그림보거북이(다차)(대표 김정환)가 단체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희성 기자

의사·한의사 함께하는 동네돌봄의사 운영

전주시, 35개 동마다 의사 1명·한의사 1명 매칭해 의료돌봄 사각 가정 건강 코칭 실시

전주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돌봄 사각 대상자 가정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건강의료안전망 동네돌봄의사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1-3차 군분류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관리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주시 의사회 소속 의사 20명과 전주시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이 35개 동에 의사·한의사 1명씩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고혈압과 당뇨, 천식, 요실금 등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 중인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은 병원에 갈 수 없어 대리 처방과 고관절 부위의 반복적 욕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동네돌봄의사인 내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다.

동네돌봄의사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사물이 좀 더 편리한 천식흡입기 교체 안내 및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청정기 사용 권유, 욕창



전주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돌봄 사각 대상자 가정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처 방법 등 보호자 교육을 함께 진행해 도움을 줬다.

동네돌봄의사인 천기태 원장은 "진료실에서는 알지 못했던 환자가 처한 생활 환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건강의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동네돌봄의사 사업은 건강 상담을 넘어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돌봄상황까지 함께 살피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모델"이라며 "의과, 한의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자동차세 279억원 부과...기한 내 납부 홍보

전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담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한이 3일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42211) 및 스마트폰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납부가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전주시는 10일 완산구 교동 낙수정 인근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2026년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전주시 산림공원과 재난 안전과 직원과 경찰서, 산림재난대응단, 마을 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 발령 및 산사태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는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현장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대피 결정을



내리고,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전파했다.

이어 주민센터와 자율방재단, 산림재난대응단이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대피하도록 조치했으며, 주민들은 지정된 대피소인 낙수정로당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경찰은 산림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대피불응자 대피 지원에 나섰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